

# 독립운동가 간호사

## 정종명 '건국훈장 애국장' - 김금석 '대통령 표창'

### 간협, 대한민국을 간호한 독립투사 발굴

#### 독립운동가 간호사 16명 정부포상 받아

독립운동을 한 정종명 간호사가 건국훈장 애국장, 김금석 간호사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국가보훈처는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들을 포상했으며, 이 중 간호사 2명이 포함됐다. 이로써 독립운동가 간호사 중 정부 포상을 받은 간호사가 16명으로 늘어났다.

◇정종명 간호사(1896~미상) =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인위를 위해 투쟁한 여성 독립운동가이다. 서울 본정(현 충무로)에서 태어났으며, 1917년 세브란스간

호학교에 입학했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이갑성을 돕다 체포됐다. 조산부 자격을 취득해 서울 안국동에서 산파의 길을 걸었다.

‘조선여자고학생상조회’와 ‘경성여성동우회’, 한국인 간호사만으로 구성된 ‘조선간호부협회’ 등을 조직했다. 항일여성운동단체인 ‘근우회’의 발기인단이었으며, 장립대회에서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 평생 여성들의 권익향상을 위

해 노력했으며, 문맹퇴치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금석 간호사(미상) = 남자 간호사로 광주지역 3.1만세운동에 참여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남 화순군 남면 사평리 출신이다. 광주제병원(병원)에서 간호사로 활동했다.

1919년 3월 10일 광주 부동교(광주 동구 불로동과 남구 사동을 잇는 다리) 아래 작은 장터에서 학생, 교사, 주민들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펼쳤다.

김안순 간호사, 김화순 간호사와 함께 참여해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 일로 체포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4개월 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체포 당시 28세였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역사 뿌리찾기사업을 통해 독립운동을 한 간호사들을 발굴하고 알리

는 데 힘써왔다. 이 중 항일구국운동에 헌신한 독립투사 간호사 26명의 애국정신과 삶의 발자취를 집대성한 ‘간호사의 항일구국운동’을 2012년 발간했다.

책은 근대 간호의 도입과 간호사 양성, 국내에서의 항일운동, 국외에서의 항일운동, 항일구국운동 간호사 열전으로 구성됐다. 항일구국운동 간호사 열전에는 활동시기별로 임수명, 박원경, 김대복, 노순경, 박덕혜, 이도신, 김효순, 박옥신, 박지혜, 윤진수, 이정숙, 이상관, 이아주, 장윤희, 조명숙, 정종명, 탁명숙, 채계복, 한신광, 김응숙, 김오선, 함귀래, 김안순, 김화순, 김금석, 홍덕주 간호사 등의 발자취가 실렸다.

이 중 16명이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 등 정부 포상을 받았다.

최수정·정규숙 기자

### 독립운동가 간호사 주요활동

임수명 (1894~1924)	독립운동가 신필균 선생과 결혼. 항일 비밀문서 연락과 배포, 적의 흉탄이 숨진 남편 따라 자결.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박원경 (1901~1983)	황해도 재령 만세운동 주도해 옥고 치름. 농촌계몽운동, 독립운동가 가족을 도움.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대전현충원 애국지사 제4묘역 안치.
김대복 (미상~1933)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의용단, 근우회 등에서 독립운동 주도. 1930년대 빈민과 고아 위한 사회사업 펼쳐 추앙받음. 건국포장 추서.
노순경 (1902~1979)	상해임시정부 군무총장을 지낸 노백린 장군의 차녀. 서울 훈정동 대묘(종묘) 앞 만세시위 주도해 옥고를 겪음. 대통령 표창 추서.
박덕혜 (1900~미상)	서울 훈정동 대묘 앞 만세시위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다 체포돼 옥고를 겪음.
이도신 (1901~미상)	노순경, 박덕혜 등과 대묘 앞 만세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돼 옥고를 겪음. 대통령 표창 추서.
김효순 (1902~미상)	노순경, 박덕혜 등과 대묘 앞 만세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돼 옥고를 겪음. 대통령 표창 추서.
박옥신 (미상)	대한적십자회 대한지부 회원과 평의원, 대한민국애국부인회에서 활발한 활동.
박지혜 (1893~1944)	간우회 활동 주도. 만주에서 단재 신채호 선생과 결혼해 함께 독립운동. 독립투사 지원 임무 수행.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윤진수 (미상)	대한민국애국부인회에서 적십자부장 맡아 활동.
이정숙 (1899~미상)	월성대애국부인회 조직. 대한민국애국부인회 경성지부장 및 적십자부장 활동. 체포돼 대구 감옥에 수감.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이상관 (1897~미상)	정신여학교 학생들에게 독립선언서 배포. 대한민국애국부인회 결사대장 등 활동.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이아주 (1898~1968)	3·1운동 당시 정신여학교 학생들과 만세시위를 주도해 징역형 선고받음. 대통령 표창 추서.

장윤희 (미상)	독립운동가를 배포해 징역형 선고받음.
조명숙 (미상)	원산 구세병원 간호사로 3·1운동에 참여.
정종명 (1896~미상)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명인 이갑성을 돕다 체포. 경성여성동우회 활동. 근우회 간부로 여성계몽과 독립운동 앞장.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탁명숙 (1892~미상)	1919년 3월 5일 학생들의 대대적인 만세시위에 참여. 강우규 의사 피신 돕다 투옥됨. 함경도 동명여학교 설립. 건국포장 추서.
채계복 (미상)	1919년 3월 5일 학생 만세시위 참여. 연해주에서 부인독립회의 간호부 양성교육 실시. 의연급 모금활동.
한신광 (1902~1982)	3·1운동으로 체포됨. 조선간호부협회 초대회장. 근우회 활동. 경성여자 소비조합 참여. 3·1여성동지회 태극반지 받음.
김응숙 (미상)	만주지역 독립운동단체 학생광복단에서 활동하다 체포됨.
김오선 (미상)	애국부인회, 부인적십자단 등에서 독립운동.
함귀래 (1911~미상)	항일운동 어려웠던 1930년대 중반 독립운동에 참여.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됨.
김안순 (1900~1979)	광주지역 만세운동 참여. 징역형 선고받음. 대통령 표창 추서.
김화순 (미상)	광주지역 만세운동 참여. 징역형 선고받음. 대통령 표창 추서.
김금석 (미상)	남자간호사. 광주지역 만세운동 참여로 징역형 선고받음. 대통령 표창 추서.
홍덕주 (1890~1935)	남자간호사. 광주지역 만세운동 참여. 조선독립신문 입수해 배포한 혐의로 징역형 선고받음.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발급 개시

해외유학 등에 필요한 영문 예방접종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nip.cdc.go.kr)를 통해 8월 27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영문 예방접종증명서는 해외유학 등에 필요한 서류로, 그동안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연간 약 4만명이 보건소를 방문해 발급받았으며, 이번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통해 신청자들의 직접 방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 개인정보 및 자녀정보 등을 등록하면 바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신청자의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주소와 영문 이름을 직접 입력해 신청내역을 작성해야 한다.

예방접종도우미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문서 진위 확인이 가능하다. 발급이 완료된 문서는 신청일 이후 90일까지 조회할 수 있다.

주혜진 기자 hjoo@

### 우리의 발자취 II-나의 인생을 말하다

하영수 이화여대 명예교수 저



하영수 이화여대 간호대학 명예교수가 '우리의 발자취 II-나의 인생을 말하다'를 펴냈다. 책 제목은 남편 광현모 교수가 생전에 '우리의 발자취' 조판에 이어 2권을 출간해 줄 것을 부탁한 데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세브란스간호학교 입학과 한국전쟁 피난생활, 미국 유학 시절,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로 살아온 삶을 고루 다뤘다. 특히 은퇴 이후의 삶을 정직하게 쓰려고 노력했다. 60년 가까이 함께 했던 남편과의 각별한 사랑의 인연도 담았으며, 훗날 허나남나라에서 이어질 우리의 동행을 믿는다고 밝혔다.

책은 △꿈을 품고 달려간 젊음의 시간들 △인생의 황금기, 영롱하게 빛나는 △사랑하는 남편, 광현모 교수 △아내라는 이름으로 △뒤늦게 찾은 은퇴 후의 행복 △우리의 마지막 시간들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 △영원한 사랑의 이름, 가족 등 총 8장으로 구성됐다.

정규숙 기자 kschung@

책의 여는 글을 통해 하영수 명예교수는 “후배와 제자들에게는 간호학을 사랑한 내 삶의 가치와 보람을, 내 인성과 후손들에게는 가족의 근원을 알게 해주는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체 하영수 명예교수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을 수상했다. 이화여대 간호대학 학장, 대한간호학회(현 한국간호과학회) 회장, 대한간호협회 이사, 국제간호협의회 전문직간호사업위원회(ICN PSC) 위원 등을 지냈다.

### 인사

#### 박은순 보건지원과장 전북 남원시보건소



전북 남원시보건소 보건지원과장에 박은순 간호사가 임명됐다.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보건지원과장을 맡게 됐다. 9월 1일자.

박은순 과장은 1983년 전북대 간호대학을 졸업했다. 공직에 입문해 남원시 운봉읍 연동보건진료소장을 지냈다. 이후 출근 남원시 보건소에 몸담으며 방문보건, 건강증진, 출산지원 등을 담당했다.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남원시장상 등을 수상했다.

박은순 과장은 “그동안 고향인 남원에서 남원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일할 수 있어 보람있었고, 앞으로도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독자주소 변경**  
☎ 02)2260-2571

### 2018년 인권교육 '건강한 성 이야기'

대한간호협회는 2018년 인권교육 '간호사, 함께가요'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간호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프로그램명	건강한 성 이야기
강사	구성애(푸른아우성 대표)
일시	2018년 10월 17일(수) 14:00~16:00
장소	대한간호협회 대강당
인원	130명(선착순 마감)
교육비	없음
신청기간	2018년 9월 21일(금)~10월 12일(금)

\* 본 인권교육은 의료인 필수과목 이수로 인정됩니다.  
\* 신청방법 : KNA에듀센터(edu.kna.or.kr) 개인회원 로그인 → 오프라인 RN교육 → 오프라인 필수교육 '건강한 성 이야기' 검색 → 신청

<b>간호사신문</b>	발행인·편집인 신 경 립 인세인 김 갑 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다06388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호사신문 (02)2260-2571 FAX (02)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2260-2571 nursenews.co.kr



# 간호학 전문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 시작부터 합격까지 '간호교육연수원'은 다릅니다.



- ✓ 임상생활 또는 현재생업을 병행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 구축
- ✓ BMW (버스, 전철, 도보) 자투리 시간 활용을 위한 온라인 + 모바일 무상 제공
- ✓ 혼자서가 아닌 전문 학습 담임제에 의한 1:1 매니지먼트 서비스 제공



5단계 학습 시스템 제공

간호직공무원/ 보건진료직공무원/ 보건직공무원/ 보건복지부공무원 / 보건교사 / 공사·공단 취업 /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무료상담 080-529-0909, 080-913-0909

www.ganhohak.co.kr

